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38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말씀 나눔: 매일 보내는 말씀 묵상을 따라 기도하면서 참여 바랍니다.
4. **성령강림절기**입니다. 성령충만 받아 증인된 사명 감당하며 날마다 승리합니다!
5. 성경통독: 제 7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이 은혜 중에 진행(23일) 됩니다.
6.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 기도회. 9/20(수) 8시 Zoom 기도회(사도행전 강해)
7. 감사: 점심은 이승택 집사님께서 접대. 강단 장식은 유혜영 권사님 생일 감사.
8. 창립 기념예배: 9/24일 창립 14주년 기념 감사예배(유동윤 선교사) 드립니다.
9. **차세대 사역**: 차세대를 위한 관심과 중보기도를 바랍. *예배 후 **교인총회** 모임.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님 전도사(267)265-0369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 봉헌 (\$ 2,291.00)

십 일 조: 김반석,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진원 유금자, 유혜영,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조우형 이해련.

감 사: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경원, 이승택,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주일헌금: 고향숙, 김반석, 박병기,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선교헌금(7Days 감사): 유혜영,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특 별:

2023년 교회 목표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흑 해 (유동윤) 선교센터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제15권 38호 2023년 9월 17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엘림찬양단
- 합심기도 Prayer 다 같이
-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 같이
- ♣ 송 영 Spiritual Song 다 같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유금자권사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인도자
- 찬 양 Anthem 찬양단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이사야 38:1-6 다 같이
- 설 교 Sermon “삶의 위기와 하나님의 기획” 조병우 목사
- 봉헌찬송 Hymn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 같이
- ♣ 헌금봉헌 Offering 찬송가 213장 (4절) 다 같이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조병우 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 요 기 도 회

밤 8:00 (ZOOM)

새 벽 기 도 회

화~토 새벽 6:00

이 번 주 섬 김 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 헌금위원
이번주	유금자 권사	조병우 목사	이승택 집사	조민연 박종님
다음주	김반석 목사	박종님 전도사	다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더 관심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노예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출 14:30) 마땅히 감사해야 했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와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16:3) 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지만 모세가 지도자였으므로 그에게 싸움을 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17:3)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 계신가 의심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실 때 종종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더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The people of Israel. had just been delivered from slavery (Exo.14:30), and they ought to have been thankful. Instead, they started to complain to Moses and Aaron, "Oh, that we had died by the hand of the LORD in the land of Egypt!" (16:3). In reality, their complaint was with God, but they picked a fight with Moses because he was the leader. They said, "Why is it you have brought us up out of Egypt, to kill us and our children and our livestock with thirst?" (v.3). The people even began questioning if God was really with them. Yet He always met their needs.

Honestly, we would have to admit that we sometimes complain, and accuse Him of being absent or disinterested. when God isn't coming through for us the way we want. But when our heart is concerned with God's purposes rather than our own, we will be patient and trust Him to provide all that we need.